

4  
A  
VENUEL

# AVENUEL

PREMIUM SHOPPING MAGAZINE

NOVEMBER 2018



OLD TASTE

Premium Shopping Magazine | NOVEMBER 2018



IMAGE CREDIT BY WAGNERREISER

14년간의 집을 디자인하면서 직접 가구도 제작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파리 S&S 중상가에 모인한 스타일로 북미에서 그가 만든 디자인 가구의 그가 좋아하는 전사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박스형의 LED 조명과 그가 디자인한 카펫으로 꾸민 내부 2 피트리스 오베리 스타일리스 스타일 변화와 일체적으로 현대적인 LED 조명과 울루 컬러의 스타일 있는 조명

파블로스 오베리의 집을 예술 작품으로 비유하면, 감각적인 프랭크 스텔라의 추상 작품 같다. 김 자체가 캔버스다. 프랭크 스텔라의 걸어나간 캔버스처럼 그는 벽을 베로네즈 그린(Veronese green), 스카이 블루 등 채도 높은 컬러로 칠하고 천장은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후드 조각 타일과 LED 조명으로 꾸몄다. 벽난로, 테이블, 소파 등 그의 집에 놓인 가구는 하나같이 독특하다. 각 시대마다 급진적 디자인이라 평가받았던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앙드레 뒤브레유(André Duboué), 톰 디kson(Tom Dixon), 가에 아올렌티(Gae Aulenti),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조지 넬슨(George Nelson) 등의 작품은 물론 세계 각지의 장인들과 함께 제작한 작품도 있다. 개별적으로는 언뜻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30년 넘게 타인의 공간을 배려해온 그의 내공 덕분에 모든 공간은 질세라 배려를 갖추고 있다.



IMAGE CREDIT BY PATRICK THOMAS



3

집에 들어오는 순간 화려한 컬러에 놀랐다. 밝은 기운이 가득한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탓이겠지. 일렉트릭하고 색채감이 강렬한 작품에 감탄다.

평면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가인 에토레 소트사스, 가에 아올렌티, 이사무 노구치 등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의 디자인 가구도 볼모된다. 나는 극적인 대조법을 즐긴다. 전통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느낌을 동시에 느끼길 바란다. 예를 들어 베로네즈 그린과 다크 그레이를 함께 칠해 상생 작용을 즐기는 식이다. 수년간 예술 작품을 수집하면서 색채, 형태, 질감을 빠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디자인 감각이면서 디자이너인 이들의 작품을 통해 공간을 구조적으로 배치하는 감각을 터득했다. 훌륭한 아트 작품은 공간에 울림을 준다고 믿는다.

13살 때부터 작품을 수집했다고, 처음 산 작품은 무엇인가. 19세기 사냥의 프랑스 세라믹 도자기였다. 예리한 질감의 화이트 컬러. 예나뎌 처리한 은, 기하학적 패턴이 눈길을 끄는 전통적인 스타일이었다. 어린 때는 주로 19~20세기 시대의 클래식한 작품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장르의 것을 수집했다. 최근에는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과 디자인 오브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품 규모와 스타일이 궁금하다. 300여 점 정도 된다. 타인의 공간을 작업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접하다 보니 취향의 폭도 넓어졌다. 이렇듯 작거보다 클래식한 작품을 주목하려 한다.

3. S&S, S&S의 조인 2017년에 열린 플로리안 로베르티(Francoise)의 모노그램 작품. 파리 S&S에는 05/05/05 무지개색에 구한 것이다. 4. 이집트와 멕시코의 전통 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그의 집에는 나무, 사면, 돌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가구가 채워져 있다.



4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 공간은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